

GMO 옥수수 섬유 실용화 “파란”

2007년부터 의류 5종 생산 추진 ... 생분해성 기저귀까지도 생산

유전자조작(GM) 옥수수 섬유로 만든 의류가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바이오기술 회의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CBS 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외국산 석유에 의존하는 합성섬유산업에 대한 소비자와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바이오기술산업기구(BIO)가 마련한 패션쇼에서는 오스카 데라렌타와 베르사체 등 저명 디자이너들의 옥수수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미래 패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의류 디자이너 린다 루터밀크는 2007년부터 GM 옥수수 섬유 <인지오>로 만든 진 제품 등 5종의 의류를 생산할 계획이고 양말 제조기업인 폭스 리버 밀스 등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부기업들은 옥수수 섬유로 만든 자연분해 기저귀도 개발하고 있다.

이태리와 스페인에서는 이미 인지오 기저귀가 시판되고 있으나 가격이 싸면서도 분해 속도가 빠른 기저귀를 만드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SAP(Superabsorbent Polymer) 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루터밀크는 “색다른 소재가 대체 에너지로, 대체 섬유로서 갖는 의미에 대해 소비자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함에 따라 인지오의 앞날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오 섬유는 순수 식물성 재료이면서도 GM 작물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과 순수 유기농 농장주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운동가와 순수 유기농 농장주들은 GM 작물이 재래식 재배 방식 작물과 뒤섞여 버리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미국에서 생산된 면화의 52%가 병충해를 막기 위해 박테리아 유전자 조작을 거친 것이라는 사실이 보여주듯 현재 생산되는 면직 의류의 대부분은 많은 적은 GM 작물이 섞여있다.

옥수수도 거의 절반이 GM 작물이다.

옥수수를 인지오로 전환하는 네브래스카주의 Nature Works는 공장 반입 단계에서 옥수수의 재배 방식을 따지지 않고 섞어 버리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GM 작물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식품·영농기업인 Cargill의 자회사인 Nature Works는 가공방식에 따라 인지오가 순면 같은 촉감을 줄 수도, 폴리에스터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면서 “폴리에스터의 모든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환경친화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20>